기생충 제작발표회

"영화에 기생충은 나오지 않아요 한국 관객들은 뼛속까지 이해할 것"

봉준호 감독

송강호

"한국관객들이 봐야만 뼛속까지 100% 이해할 수 있는 디테일이 곳곳에 있는 영화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자신의 새 영화 '기생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2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생충' 제작보고회에서 봉 감독은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진출 소감으로 "언제 가든 설레고 긴장된다"며 "가장 뜨겁고 열기가 넘치는 곳에서 고생해서 찍은 영화를 선보이게 돼서 그 자체로 기쁘다"고 말문을 열었다.

봉 감독은 "이 영화는 한국적인 작품으로, 칸의 관객은 100%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봉 감독은 "모순되는 이야기지만, 부유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극과 극의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이어서 영화가 시작되면 1분 이내에 외국 관객에게도 파고들 수 있는 내용"이라며 "외국 관객도 한국관객 못지않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워낙 어마어마한 감독들이 (경쟁부문에) 포진해 있어서 수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배우들의 수상 가능성은 높다"고 웃었다.

'기생충'은 전원 백수인 기택네 장남 기우가 고액 과외 면접을 위해 박 사장네 집에 발을 들이면서 벌어지는 예기치 않은 사건을 그린 '가족 희비극'이다.

봉 감독의 페르소나 송강호를 비롯해 이선균, 조여정, 최우식, 박소담, 장혜진 등이 출연한다.

봉 감독은 "영화에 기생충이 나오지는 않는다. 모든 인물도 위생적으로 완벽하다"며 "영화를 보고 나면 '기생충'의 뜻을 추측해볼 수 있는 영화다. 내 입으로 말하기는 쑥스럽다"라고 웃었다.

그는 "2013년 겨울, 지인에게 이 영화 이야기를 처음 했었다. 두 가족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일상에서 전혀 마주칠 않는 것 같지 않은 두 가족이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처음에 가제는 '데칼코마니'였다"고 떠올렸다.

영화에서 극과 극에 있는 두 가족의 모습은 크기부터 상반되는 이들의 집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봉 감독은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주치는 일이 별로 없다. 인위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공간이 나뉘어있다"며 "그 두 공간의 대비가 필요했다. 영화에서는 그 크기 차이가 더 극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영화가 훌륭한 면이 있다면 배우들로부터 나온다. 모든 배우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화학 작용을 하며 톱니바퀴처럼 굴러간다"며 공을 배우들에게 돌렸다.

'기생충'으로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는 다섯 번째, 이선균은 두 번째, 최우식은 세 번째로 칸을 찾는다.

봉준호의 페르소나로 불리는 송강호는 그와 '설국열차' 이후 6년 만에 호흡을 맞춘 데 대해 "매번 놀라운 상상력과 통찰력 있는 영화를 만들면서 꾸준히 도전하는 분이다. '기생충'은 '살인의 추억' 16년 후 봉준호 감독과 한국 영화의 진화를 보여준다"며 "봉 감독을 안 지 20년 됐는데, 그가 추구하는 작품 세계가 감탄스럽다. 작업할 때도 즐기게 된다"고 말했다.

칸 진출에 대해 송강호는 "제가 칸에 갔던 작품들이 경쟁부문에서 여우주연상과 심사위원상을 받았다"며 "그 전통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봉 감독도 송강호와의 호흡에 대해 "지난 17년 동안 4편의 작품을 송강호 선배와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강호 선배와는 더 과감해질 수 있고 더 어려운 시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며 "축구에서 메시나 호날두가 작은 몸짓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는 것처럼 영화 전체의 흐름을 규정해버리는 강호 선배의 위력을 확인했다"고 치켜세웠다.

이번이 봉준호 감독과의 첫 작업인 이선균은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 마치 대학교 입학할 때처럼 흥분됐다"며 "감사 인사를 많이 했는데 대본을 봤더니 생각보다 분량이 많지 않아서 리액션이 과하지 않았나 싶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기택네 장남 기우 역을 맡은 최우식은 "가족끼리 항상 같이 나오는 장면이 많아서 준비했는데, 현장에서 워낙 재밌게 가족같이 잘 지냈다"고 돌아봤다.

기택의 딸인 기정은 박소담이 연기한다. 그는 "송강호 선배님 딸로 나온다고 해서 그 부분부터 끌렸다"며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같은 구성원의 두 가족이 만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여준다는 자체가 놀라웠다"고 영화 참여 소감을 밝혔다. 영화는 다음 달 개봉한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 3연속 빌보드 정상

67년 몽키스 이후 최단 기간
11개월에 세 번째…비틀스 앞서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에서 11개월 만에 세 번째 정상에 등극했다. 1년 안에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에 3장 앨범을 올려놓은 그룹은 비틀스 이후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0' 차트 역사에서 전통적인 그룹 가운데, 비틀스가 세운 마지막 기록인 11개월 1주보다 빠른 시간에 3연속 정상을 달성했다.

빌보드는 21일(이하 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Map of the Soul: Persona)가 '빌보드 200' 최신차트(4월 27일자 차트)에서 세 번째 1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15일 빌보드는 방탄소년단 앨범 판매량이 압도적이자 통상 최신 차트 발표 1~2일 전 내는 예고 기사를 5~6일 가량 앞서 보도하며 1위를 예고했다.

닐슨뮤직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매된 앨범은 19일까지 23만장이 판매됐다. 이중 전통적인 앨범 판매량이 19만600장,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rack equivalent albums·TEA)가 8000장,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treaming equivalent albums·SEA)가 2만6천장으로 집계됐다. 빌보드는 음원 10곡을 다운로드하거나, 1500곡을 스트리밍 서비스받은 경우 전통적인 앨범 1장을 산 것으로 간주한다.

빌보드는 "지난 1년 동안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비(非)영어권 앨범 4장 중 3장이 방탄소년단 앨범"이라며 "발매 첫 주 앨범 판매량으로는 방탄소년단 자체 최고 기록이자 올해 그룹으로는 두 번째, 전 세계 아티스트로는 네 번째로 높은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빌보드는 이날 후속 보도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이 기록이 11개월 1주 기록을 가진 비틀스를 앞섰으며, 1967년 밴드 몽키스 이후 그룹으로는 최단 기간 3개 앨범 1위를 달성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연합뉴스

KBS 다큐 '쇠제비갈매기의 비밀' 佛영화제 최우수상

UHD(초고화질) 자연 다큐멘터리 '안동호 쇠제비갈매기의 비밀'이 프랑스 자연다큐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다. KBS는 이 작품이 지난 20일 프랑스 아베빌에서 열린 자연다큐영화제 '새와 야생동물 페스티벌'에서 '야생동물'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이달 개최된 '2019 휴스턴영화제'에서도 심사위원특별상(최고상)을 받아 이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 작품은 KBS를 대표하는 자연환경다큐 전문 신동만 PD가 연출을 맡아 경북 안동호 작은 모래섬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쇠제비갈매기의 생태를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프랑스 문화통신성이 1991년 제정한 상인 '새와 야생동물 페스티벌'은 영국의 '와일드스크린', 미국의 '잭슨홀'과 더불어 세계 3대 자연다큐 페스티벌로 권위를 인정받는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아(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중계방송 방송기자클럽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토론회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문희상 국회의장	00 국민 여러분(재)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국회의장 문희상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회사 가기 싫어 2019(재)	00 12 MBC 뉴스 25 다큐 나는…산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거북이 늬우스 50 제24회 KBS 119상 시상식		25 뿌까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2019 KBS배 전국체조대회 〈도마, 철봉〉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버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경성판타지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0 KBC 저녁뉴스 55 영재발굴단(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55 닥터 365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왼손잡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55 SBS 8 뉴스
8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국민 여러분(재)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오늘밤 김제동	00 국민 여러분	0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00 해치
11	35 UHD 숨터 40 전국이장회의(재)	10 회사 가기 싫어 2019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 걸작 다큐멘터리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05 100분 토론	4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너티너츠
07: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띠띠뽀 띠띠뽀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뽀롱뽀롱 뽀로로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09:40 극한직업 스페셜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모둠숙쌈과 명란 두부쌈장〉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미래교육 플러스
13:00 다큐 오늘
13:10 최고의 요리비결
〈차돌양지 편육과 구운 마 샐러드〉
13:40 사건 브리핑-안전상황실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15:00 마샤와 곰 스페셜
15:15 탑윙 구조대
15:45 몬카트
16:15 책과 팡
16:30 방귀대장 뿡뿡이(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
17:15 마샤와 곰
17:30 로보카 폴리
17:45 띠띠뽀 띠띠뽀(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1~5
19:00 미니특공대 X
19:30 EBS 뉴스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20:40 세계테마기행
〈꼭 한번은, 북유럽 2부
꿈꾸던 천국 로포텐〉
21:30 한국기행
〈길 끝, 마을이 보인다 2부
꽃길 끝 무릉도원〉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조식포함 아파트
23:55 모두의 모바일 MOMO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3일(음 3월 19일 庚寅)

子 36년생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운이 따를 수 있느니라. 48년생 발전의 위상으로 전환된다. 60년생 능수능란한 임기응변이 절실할 때이다. 72년생 위험하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형상이다. 84년생 과정은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결과가 양호하리라. 행운의 숫자 : 69, 32

丑 37년생 뜻이 확실하다면 기탄없이 추진하는 것이 낫다. 49년생 칭찬에 기뻐하지 말고 뼈아픈 충고에 귀 기울여라. 61년생 터놓고 얘기 해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73년생 참으로 애매할 것이다. 85년생 방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판도이다. 행운의 숫자 : 17, 63

寅 38년생 전적인 신뢰는 소모적인 결과를 부른다. 50년생 입장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질 것이다. 62년생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참된 말은 귀에 거슬린다. 74년생 간발의 차이로 우열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86년생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64, 69

卯 39년생 불리하다고 해서 윤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51년생 무모함은 피해를 부를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63년생 막상 임하고 보면 별 것이 아님을 알리라. 75년생 명분에 그친다면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87년생 도움과 관심이 모아져서 길사가 꽃핀다. 행운의 숫자 : 71, 57

辰 40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상당한 변수를 안고 있다. 52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회를 접하는 기쁨이 있다. 64년생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76년생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88년생 파상적인 현상일 뿐이니 무시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28, 67

巳 41년생 과거에 미처 몰랐던 원리를 깨닫는 기쁨이 있다. 53년생 변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면 당황한다. 65년생 생산적인 관계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77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89년생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속상할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65, 55

午 42년생 오판한다면 반드시 손재수가 따른다. 54년생 면밀하게 판단할 일임을 분명히 알라. 66년생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명확히 이행해야 말썽이 없다. 78년생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니 면액할 길을 찾아라. 90년생 점점 활기를 띠면서 운로가 왕성해진다. 행운의 숫자 : 41, 07

未 43년생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55년생 부당하다면 결코 용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67년생 잔꾀 부리다가는 크게 실수할 수도 있도다. 79년생 여건의 변화에 따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91년생 정말 나서고 싶어도 잠자코 있는 편이 낫다. 행운의 숫자 : 96, 33

申 44년생 근원적인 부분부터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겠다. 56년생 잊어서는 아니 된다. 68년생 서로 응하여 융합하게 되는 기쁨이 상당하다. 80년생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92년생 행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5, 92

酉 45년생 발생한 후에는 이미 늦음을 알라. 57년생 상대의 의사를 수용해 주자. 69년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형국에 놓여있다. 81년생 재물운이 나아지고 있으니 수용할 준비를 하라. 93년생 순식간에 상호간의 입장이 뒤바뀔 수 있으니 방심은 금물이다. 행운의 숫자 : 54, 65

戌 34년생 이익이 따르느니라. 46년생 본디의 상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58년생 기존의 틀이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위험하다. 70년생 상대의 조언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 82년생 불균형이 보이니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잡자. 행운의 숫자 : 47, 61

亥 35년생 낙관적인 정황만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47년생 사소한 허점이 위험으로 비화 될 수도 있다. 59년생 심사숙고 한다면 손재를 막는다. 71년생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만 융통이 쉽지 않을 것이다. 83년생 조금만 더 진행하면 원하던 단계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62, 7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